

수능 11월 13일... 전년 기조 유지 킬러문항 빼고, EBS 연계율 50%

202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 '공통+선택과목' 현행 체제 유지 공교육 범위 내 적정 난이도 출제 도표 등 활용 EBS 연계 체감도↑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은 예년과 같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한 문항이 출제된다. 전년도 수능과 같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2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어·수학·직업 탐구 '공통+선택' 구조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 탐구 영역이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가 유지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시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어 영역에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수능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공개
2026학년도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되지 3년 차로, 모든 과목에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영역과 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수능은 11월 13일 실시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성적 통지는 12월 5일 이뤄진다. 본 수능에 앞서 치르는 모의고사는 6월 3일과 9월 3일 두 차례 치러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강서 화곡·마포 중동에 모아타운 짓는다

서울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 공급

1636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5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임대 24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곳이다.

이번에 통합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화곡동 957-1번지 일대는 면적 9만 4080㎡ 규모로, 향후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임대 137세대를 포함해 총

면적 1만8612㎡ 규모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17개소가 추진돼 총 531세대의 주택이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반지하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린 68%, 대학 합격... 사교육 절감 '톡톡'

782명 합격... 전년비 100명 증가

올해는 전년 대비 100명 늘었다. 특히 올해 고3 이상 서울린 회원 대학 합격자가 782명 중 서울 11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고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은 17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서울린'으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서울린 회원 67.8%가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합격생들의 '입시 준비에 활용한 교육 서비스' 중 서울린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60.3%로 일반 사교육(16.9%)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또한, 올해 합격생 중 20%에 해당하는 158명은 다른 사교육 없이 '서울린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고 답했다. /이현진 기자

25일 서울시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자 수와 서울린 참여·만족도 등을 분석한 결과, 1154명 중 67.8%에 해당하는 7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엔 응시자 1084명 중 63%에 해당하는 682명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인천시, 적극행정 '전국 1위' 최우수 선정

3년 연속 1위 '최우수 기관'으로 제도적 노력 등 행정역량 인정받아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수행 실적과 적극행정 제도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광역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또 한번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5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를 토대로 행정문화 개선에 나섰고 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 제도, 보호지침 운영, 캠페인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 지표를 종합 분석해 이뤄졌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6월 3일 첫 모의평가... 적정 난이도 유지

학교·EBS 연계, 공교육 범위 출제
사교육 문제풀이 훈련 문제 배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늠자' 역할을 할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가 3일 시행된다. 모의고사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 EBS를 연계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6학년

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할 예정이다.

모의평가 시험 영역은 수능과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조리실무사 315명 수시 채용

5월부터 강동 송파·강남 서초 근무

서울시교육청은 신규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리실무사로 최종 합격한 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동송파, 강남서초 교

육지원청 소속 공립학교에 배치되며, 3개월의 수습 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친 후 정년(60세)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갖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 외국인 제외)로 성

별 및 지역(거주지)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다.

응시원서는 26일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6일간 이메일(nosainsa2@seoul.go.kr)로 접수받는다. 자격요건, 채용방법 및 일정 등 공고 세부내용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 공고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7 | 해질 / 18:49

3월 26일(수) / 음력 : 2월 27일

수도권 날씨 / 6 ~ 2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21, 동두천 3/21, 가평 1/21, 양평 4/22, 용인 4/21, 평택 3/23, 파주 2/20, 인천 6/18, 수원 4/21, 백령도 5/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전 정권 겨냥 잇단 경호 취소...전 국토 안보부 장관 포함
▲"日, '車관세 면제' 약속 못 받아...최대 40% 타격 우려" /사진 뉴시스

▲EU 무역수장, 관세전쟁 본격화 앞 방미...이견 좁힐 수 있을까
▲영국서 세계 최초 '양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사례 확인

▲美·日국방, 30일 도쿄서 회담...방위 협력 강화 논의
▲"두테르테 체포전 중국에 망명 신청"...중국, 관련 보도 부인